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임파워링에 대한 빈곤지역주민의 개별적 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

조직적 지역사회임파워먼트 영역(ODCE: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접근들의 적용

강 대 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이 빈곤지역주민의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asmel과 Tanggaard의 조직적 임파워먼트영역 접근들(ODCE)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자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2명의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임파워링특성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 주민과 남성 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링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이었고,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참여여성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의 실제운영과 관련한 기술습득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용어: ODCE,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프로그램, 임파워링

이 논문은 2015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투고일: 2015.10.30 ■ 수정일: 2016.1.25 ■ 게재확정일: 2016.2.18

I. 서론

최근 임파워먼트 실천은 모든 지역사회복지조직의 목표라는 규범적 논의(Rothman, 2001)에서 임파워먼트의 확대 즉, 임파워링(empowering)이 성과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더욱더 현실화되고 있다(Wanderaman et al., 2000; 신명호, 2012). 이의 초점은 어떠한 조직영역과 특성이 임파워먼트 확대의 경험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이슈에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주민의 임파워먼트를 확대시킬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지역주민의 임파워먼트 상태의 가변성과 측정결과의 우연성 때문에 조직성과의 증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도 자리잡고 있다(Wandersman, 1999; Christens, Peterson & Speer, 2014). 더욱이 임파워먼트는 명확한 이론적 기초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개입목표로서 부적절한 것도 사실이다(Rissel, 1994; 황성철, 2002; Dubois & Miley, 2005). 이러한 제한점은 지역사회복지조직의 임파워링을 위한 기획 노력을 어렵게 만든 배경이라고 하겠다(Gutierrez et al., 1995).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파워링 과정은 곧 성과이고,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조직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적목표라는 사실이다(Lavrack & Wallerstein, 2001).

임파워먼트는 용어상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역사회수준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을 넘어 조직, 공동체의 문제해결과 변화에 참여하여 삶의 질 증진 등의 성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역량으로 보통 이해된다(강대선, 2013; Israel et al., 1994). 즉, 자신의 삶과 지역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power)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Boehm & Staples, 2003). 따라서 지역조직에의 참여가 지역사회임파워먼트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지역사회복지개입에 적용하면, 주민들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협상하며 통제력을 가지는 데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지원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미영, 2007; 김옥진, 김태연, 2012). 현재 법적으로 한국에서 임파워링 개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실천기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조직화 기능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화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12; 오정수, 류진석, 2014).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조직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임파워링 경험을 제공하는 책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임파워링 개입을 위한 접근들은 Laverack과 Wallerstein(2001)이 제안한 조직적 지역

사회임파워먼트 영역(ODCE: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¹⁾ 계열의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 이 계열의 연구자들은 주로 자기결정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역량(Goodman et al., 1998), 지역사회참여(Rifkin et al., 1988), 지역사회유능성(community competence), 네트워크와 파트너십(Prestby et al., 1990; Bush et al., 2002), 자원동원(Gibbon et al., 2002; Peterson & Zimmerman, 2004), 신뢰 등의 사회적 요소(Laverack & Labonte, 2000)를 조직영역의 지역사회임파워링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조직맥락에서 임파워링 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조직의 구조와 특성 및 사회적 성격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실천가들이 임파워링 확대를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Kasmel & Tanggaard, 2011). 또한 조직 구조와 사회적 성격 등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적 경험과 다소 동떨어져 평가의 결과가 피상적일 수 있다(Laverack, 2005).

Kasmel과 Tanggaard(2011)은 이러한 제한점과 대다수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사회 조직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ODCE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문제해결과정에의 주민의 참여지지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력화(community activation) 둘째, 지역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증진 활동 등과 관련한 지역사회능력개발(community competence development) 셋째,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기법에 대한 훈련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관리기술(program management skills) 넷째,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자원획득을 위한 옹호활동 등과 관련된 지지적 환경의 창출(creation of a supportive environment) 영역이다. 여러 연구에서 이들 요소들은 임파워먼트와 임파워먼트 과정에의 기여요인으로 확인되었다(Peterson & Zimmerman, 2004; Toomey, 2009; Kasmel & Tanggaard, 2011). 그러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도와 개입의 질 보장 및 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개입이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 et al., 2000; Christens, Peterson & Speer, 2014). 즉, 임파워링 효과는 실천가가 체계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차이 요소인 주민의 개별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임파워링 및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주민특성은 성, 학력, 거주특성이 제시되고 있다(이인숙, 2010; Midgley, 1987; Toomey, 2009;

1) 이하 ODCE로 통일하고자 한다.

Christens, Speer & Petersson, 2011; Guerin, Kumar & Agier, 2013).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기간이 임파워링 및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확인되었다(강대선, 2013; Toomey, 2009).

한국의 경우, 실천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주민의 임파워먼트 효과(empowered)를 밝힌 연구(김인숙, 우국희, 2002; 고미영, 2007; 신명호, 2012; 강대선, 2013)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조직영역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임파워링 경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이의 관련연구를 보면, 정신지체 성인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교육과 지지집단을 중심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상호지지변화 과정을 조사한 연구(양숙미, 2001),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임파워먼트 효과로 본 연구(이용표, 2004),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임파워먼트와 인식개선 효과를 검증한 연구(최명민, 2004), 중도지체장애인 보호제공자의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임파워먼트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차현미, 2005),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미옥 등, 2009) 등이 있다. 그리고 조직적 임파워링 특성과 한부모 여성의 임파워먼트 효과와의 관련성을 밝힌 이인숙(2010)의 연구가 조직적 임파워링에 근접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연구들은 특정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요소를 탐색적으로 발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들은 지역사회복지조직 영역에서 어떻게 임파워링을 체계적으로 의도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함의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임파워먼트 개입의 지속가능성과 질이 실천가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지역조직화사업에의 참여가 이미 임파워먼트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고(Zimmerman, 1990)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임파워링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참여효과를 높여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 셋째, 참여효과는 주민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에 Kasmel과 Tanggaard(2011)의 ODCE 접근틀을 적용하여 어떠한 임파워링 특성이 주민의 개별적 특성을 판별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실천가들이 빈곤지역 주민의 개별적 특성을 타당하게 분류한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더 주민중심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기획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인 지역사회활력화, 지역 사회능력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지지적환경의 창출 중에서 주민의 성, 학력, 거주기간, 서비스기간 등 개별적 특성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요인의 판별력이 가장 높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I. 지역사회조직의 임파워링 영역: ODCE 중심으로

ODCE의 이론적 근간은 임파워링 과정이 곧 성과라는 인식(Laverack & Wallerstein, 2001; Peterson & Zimmerman, 2004)과 임파워링은 조직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적목표라는 인식에 있다. ODCE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되기도 하고 또 중첩되고 있다(<표 1> 참조). 우선, 주요 연구자들이 제시한 ODCE 요소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Goodman과 그의 동료들은(1998) ODCE를 지역사회감, 지역사회참여, 자원, 기술, 리더십, 비판적 성찰, 네트워크, 지역사회역사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가치로 구분하였다. Laverack(1999)은 피지(Fiji)의 농촌지역 두 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를 통하여 ODCE를 참여, 리더십, 문제사정, 조직적 구조, 자원동원, 다른 조직과 사람들과의 연결, 왜라고 묻기(비판적 의식과 분석), 프로그램 관리와 외부 기관의 역할 9가지를 분류하였다. Howe와 그의 동료들(2000)은 좀 더 간명하게 세 가지 즉, 건강, 삶의 질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전달할 하부구조의 구축,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과 조직적 환경, 문제해결 역량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Bush와 그의 동료들(2002)은 지역사회역량지표(community capacity index)를 정교화하여 네트워크 파트너십, 지식 전수, 문제해결, 하부구조개발로 구분하였다. Gibbon과 그의 동료들(2002)은 대표성, 리더십, 욕구사정, 자원취득의 가능성, 실행, 연결, 관리로 구분하였다. Smith와 그의 동료들(2003)은 자주 참조되는 ODCE를 검토하여 참여, 지식, 기술, 자원, 공유된 비전, 지역사회감, 의사소통의 7가지 요소를 확인하였다. Bopp(2004)은 지역사회감, 참여, 자원, 기술과 지식, 리더십, 의사소통, 지속적인 학습을 제시하였다. 한편, Peterson과 Zimmerman(2004)은 조직임파워먼트를 조직내, 조직간, 조직외로 나누

고 인센티브 관리, 하위집단 연결, 역할기회의 구조, 리더십, 사회적 지지, 집단 중심의 신념체계, 다른 조직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사정, 동맹형성의 참여, 지역사회행동의 실행, 정보전파를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자들 모두는 ODCE 개념과 관련된 문헌검토와 조사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리고 액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1. 주요 연구자들의 ODCE 정의

연구자	ODCE 정의
Goodman et al.(1998)	지역사회감, 지역사회참여, 자원, 기술, 리더십, 비판적 반성, 네트워크, 지역사회역사 이해, 지역사회가치
Laverack(1999)	참여, 리더십, 문제사정, 조직적 구조, 자원동원, 다른 조직과 사람들과의 연결, 왜라고 묻기, 프로그램 관리, 외부기관의 역할
Howe et al.(2002)	프로그램을 전달할 하부구조의 구축, 파트너십과 조직적 환경, 문제해결 역량
Bush et al.(2002)	네트워크 파트너십, 지식전수, 문제해결, 하부구조개발
Gibbon et al.(2000)	대표성, 리더십, 욕구사정, 자원취득 가능성, 실행, 연결, 관리
Smith et al.(2003)	참여, 지식, 기술, 자원, 공유된 비전, 지역사회감, 의사소통
Bopp(2004)	지역사회감, 참여, 자원, 기술과 지식, 리더십, 의사소통, 지속적 학습
Peterson & Zimmerman(2004)	인센티브 관리, 하위집단 연결, 역할기회 구조, 리더십, 사회적 지지, 집단 중심의 신념체계, 다른 조직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사정, 동맹형성의 참여, 지역사회행동의 실행, 정보전파

이들 연구자들의 ODCE 요소들은 조직영역에서 임파워링 과정을 통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접근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ODCE에는 조직의 구조적 속성, 예를 들어 하부구조, 조직 외적 환경 등과 지역사회감 등의 사회적 속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즉, 개입의 주체인 실천가들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실천가들은 주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의도화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Kasmel과 Tanggaard(2011)는 에스토니아(Eatonia) 라플라(Rapla) 지역에서 2년간의 현장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특성과 이와 관련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다음 네 가지 영역의 임파워링 요소를 개발하였다.²⁾

2) Kasmel과 Tanggaard(2011)는 Laverack(1999) 등의 ODCE 관련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증분석 등을 2년 동안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건강, 삶의 질, 약물 중독 관련

첫째, 지역사회활력화(community activation) 영역이다. 이에는 주민들의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에의 참여지원,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새로운 리더들의 동기부여, 새로운 네트워크의 창출과 격려, 새로운 지역소집단의 유도과 자극 활동이 포함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유능성개발(community competence development) 영역이다. 이에는 어떻게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각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훈련, 증거 기반의 접근에 대한 정보배분, 삶의 질과 관련한 지역주민들과의 정보공유와 이해증진이 포함되었다. 셋째, 프로그램관리기술(program management skills) 영역이다. 여기에는 프로그램관리기술에 대한 교육·기획 및 실행과 평가 기법에 대한 훈련, 정보활용과 전파,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 지역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기법(technique)의 활용능력 증진이 포함되었다. 넷째, 지지적 환경의 창출(creation of a supportive environment) 영역이다. 이에는 로비기술 훈련,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자원에 대한 옹호활동, 다양한 재정조직과 전문가 자원에 대한 좀 더 유용한 접근, 보다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는 능력 증진과 관련한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Howe와 그의 동료들(2000)은 지역사회조직이 ODCE 모든 요소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임파워링 과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해석은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성, 학력 등의 개별적 조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경험의 해석과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II. 임파워링 효과와 지역주민의 개별적 특성

선행연구 검토에서 임파워링 효과는 실천가의 역할 측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천가는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개별특성에 따라 임파워링 확대전략을 다르게 의도화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주민특성은 성과 학력, 거주기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ODCE 영역을 구분 하였고 때문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간 및 서비스이용 기간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성은 임파워먼트 개입 및 조직참여에 대표적인 반응차이의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이인숙, 2010; 이구경숙 등, 2014; Oxaal & Baden, 1997; Guerin, Kumar & Agier, 2013).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조직참여 자체로 임파워링 경험을 느끼고, 또 관계측면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욱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구경숙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등 심리정서적 지원으로부터 자기확신감, 역량감 등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지역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념과 경향은 여전히 강하여 여성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적잖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DCE, 2001). 이에 반하여 남성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감, 업무적합성, 숙련감 등 실제적인 역량발휘와 이를 위한 지식확대와 관련된 것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ens, Speer & Peterson, 2011).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주민조직 프로그램 참여에서의 임파워링 경험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임파워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능력은 정보이해력이다(Mansuri & Rao, 2004). 왜냐하면 지역의 변화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있는 주민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분별있는 주민의 첫번째 요건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이동신 등, 2004). 학력은 이러한 정보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이다(강현수, 2010). 보통 학력은 임파워링에 긍정적 기여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관련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임파워링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학력이 낮은 주민들에게서 참여효능감 및 임파워링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Christens, Speer & Peterson, 2011). 그러므로 학력에 따라 주민조직 프로그램 참여에서의 임파워링 경험은 다르게 인식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임파워먼트 개입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라는 주민들의 지역의식에 기초하고 있다(Hughey, Peterson, Lowe & Opreescu, 200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민특성은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다(McMillan & Chavis, 1986). 대체로 거주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지역조직의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임파워링에 긍정적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

한 반응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이용기간이다. Kasmel과 Tanggard의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은 주민조직참여에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원동원 및 주민복지증진 프로그램에 더 강한 헌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교육 및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과 효과는 저하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장기간의 이용은 주민들의 힘, 적극적 참여의지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Toomey, 2009). 즉, 임파워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에 반응차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천가는 지역주민의 임파워링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떻게 조직적 임파워링 과정과 주민특성을 적절하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Foster-Fishman et al., 1998; Wandersman et al., 2000).

IV. 연구방법

1. Kasmel과 Tanngaard 조직적 지역사회임파워먼트 적용의 유용성

지역조직화 개념을 체계적인 실천으로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공고화된 접근들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Kasmel과 Tanngaard의 조직적 지역사회임파워먼트 접근들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적용 유용성을 이론과 실천 즉, 사회복지관 및 실천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 지역복지관의 지역조직화사업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12)에 의하면, 지역조직화 기능은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증분류되었다. 그러나 지역조직화는 지역문제의 지속적인 해결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주민조직의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조직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의의를 지니므로(이찬희, 문영주, 2013)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주민조직화사업의 정의가 이러한 지역조직화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주민조직화에는 주민복지증진, 주민조직화, 교육

사업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다른 지역조직화 사업, 예를 들어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다른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연계 중심사업이고,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은 복지관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12). 그러므로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자원개발 및 관리는 자원동원 및 지역복지증진이라는 지역조직화사업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추진체계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실천가 중심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화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주민조직 중심이 아니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3)에 의하면, 주민복지사업은 지역단위 행사, 주민편의 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의 세부사업으로 경로잔치 등의 지역행사, 경로당 운영 등의 시설개발,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이 포함된다. 주민조직화 활동에는 녹색가게 등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의 주민조직체 형성과 운영,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교육에는 주민지도자 교육, 주민역량강화리더 교육, 의식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식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주민조직화 사업은 주민의 조직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지향하는 주민중심의 공동체 운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셋째,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역조직화 및 주민조직화사업을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부산복지개발원(2015)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운영의 방식은 지역주민이 운영장을 맡고, 이의 파트너 겸 지원인력으로 복지관 실천가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 접근 측면에서 파트너십 임파워먼트 실천모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임파워먼트에서는 계획 형성단계에서부터 실천가의 협의와 지원, 공동 계획과정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Nikkah & Redzuan, 2009).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Kasmel과 Tanngaard의 ODCE 접근틀 접근의 유용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및 개입측면이다. 이 접근틀의 임파워링 구성요소는 노인의 삶의 질, 약물 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안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년간의 현장연구 및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건강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즉, 구성요소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회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³⁾ 즉, 지역 조직화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접근들은 그동안의 ODCE의 연구를 충분히 검토, 포함하면서 현장조사연구를 통하여 체계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개념적 성장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구성요소를 지역복지관의 실제수행사업과 결합해보면, 주민조직체 형성과 운영은 프로그램관리기술지원 영역과, 주민교육활동은 유능성형성 영역 및 주민축제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개발은 지역활력화 및 지지적 환경창출영역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 및 실천가 측면에서의 유용성이다. 사실상, 지역조직화 접근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 과정과 실천가의 역할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과정측면에서,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보통 지역조직화 접근은 실천가와 주민과의 파트너십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파악 및 이슈정리 - 강점확인과 자원평가 - 이들 강점과 자원에 기초한 해결책의 프레임화 - 네트워크 등의 자원동원 활동 - 평가 등의 과정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다(Dubois & Miley, 2005).⁴⁾ 이러한 과정에서 실천가는 교육가, 계획가, 옹호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활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복지관 실천가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하겠다. 제너럴리스트는 적절한 체계적 접근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입 지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장인협, 1999). 이 접근들의 각 영역과 세부활동을 살펴보면, 교육과 훈련역할,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역할, 프로그램관리와 지원역할, 자원개발역할 등(Dubois & Miley, 2005)이 각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접근들은 프로그램 진행단계, 주민조직의 성격과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되는 실천가의 역할과 이에 따른 지식과 기술활동 정도를 프로그램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실천적 접근들은 실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설명하는 텍스트라는 의미를 갖는다

3) 질적연구에서는 복수의 사례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일반화를 시도한다(신옥순, 1991).

4) 한국의 이찬희와 문영주(2013)에 의하면, 지역사회파악 및 이슈정리 - 주민지도자 발굴 및 관계형성 - 기존의 주민조직의 활용과 지원 - 지역조직화 활동 및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bois와 Miley(2005) 과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출발단계에서 파트너십 형성단계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복지관과 지역주민의 관계가 이미 파트너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20여년이 되어가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구성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직과 주민과의 관계는 상당히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한다.

(Trevithick, 2000). 즉, 특정이론체계에 기초한 자체적인 전문용어와 개념을 제시하며 실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Kasmel과 Tanggard의 ODCE는 이와 관련된 기준들을 안정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지역조직화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기능	정의	프로그램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주민 조직화 사업 (연구대상)	주민복지증진: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이러한 주민조직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사업	- 지역행사: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경로당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녹색가게, 소비자이용고발, 재활용운동 - 주민의식교육: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주민 또는 기업체 직원 등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 및 운영하는 사업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자료: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12),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부산, 울산,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주민조직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주민조직화 사업이 지역조직화개념과 가장 일치하고, 반면에 복지네트워크와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은 지역조직화의 개념과 임파워링 접근측면에서 그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집방법은 편의표집이었다. 조사과정은 복지관의 지역조직화 담당자에게 사전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300부의 설문지 중 200부가 회수되어 약 66.7%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하여 총 18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및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1년 이상 지역주민이었다. 즉, 심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임파워드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Zimmerman, 1995). 그리고 3개 지역에서 표집하였기 때문에 각 표본의 동질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에 시도된 한국 최초의 사회주택이다. 즉, 입주조건 등과 관련한 주민의 구성은 일정부분 법적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의 동질적이다(박윤영, 2007). 사실상 1993년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입주 주민의 장기화에 따른 고령화가 공통적 특성으로 추가되었을 뿐 다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희, 2015).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가. 예측변인(독립변수): ODCE

본 연구의 독립변수 측정도구는 Kasmel과 Tanggaard(2011)의 ODCE 접근틀에 근거하였다. 측정은 5-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조직화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한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1)에서 거의 전적으로 있다(5) 사이에서 주민들의 동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이들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활력화이다. 이는 지역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지원활동,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참여시킴, 새로운 지역지도자 발굴, 새로운 네트워크 만들, 새로운 지역집단 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요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2$ 이었다.

둘째, 지역사회유능성개발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식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훈련,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반한 정보제공, 좋은 지역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는 정보 공유⁵⁾,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보제공 관련 활동 4문항

5) 원문항은 삶의 질, 건강 증진 등의 개념, 결정요인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보공유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3명의 석사학위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액면타당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는 너무 어려운 말임으로 좋은 지역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므로 이의 용어가 친숙하다는 것도 고려하였다.

으로 측정되었다. 이 요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7$ 이었다.

셋째, 프로그램관리기술이다. 이는 프로그램 관리와 팀형성 기술의 교육, 계획·실행과 평가기법에 대한 훈련, 정보수집 및 활용기술의 교육,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리하는 주민집단의 능력증진과 관련한 활동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요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6$ 이었다.

넷째, 지지적환경창출이다. 이는 로비기술에 대한 훈련, 정치적·재정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대변활동, 다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소개, 정치적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능력증진, 보다 큰 사회적 지지 획득과 관련한 활동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요소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8$ 이었다.

나. 집단변인(종속변수): 성, 학력, 서비스 이용기간, 거주기간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개별적 특성이 종속변수이다. 첫째, 성으로 여자는 0, 남자는 1로 처리하였다. 둘째, 학력은 고졸 0, 대졸 이상 1로 처리하였다. 셋째, 서비스이용기간과 거주기간은 3년 미만 0, 3년이상 1로 처리하였다.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서비스이용기간과 거주기간은 장기로 인식되고 있다(류기형, 2010). 그리고 정보전달의 간명성을 위하여 함수식이 하나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2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3집단으로 구분되면 판별함수식은 2개가 된다.

다. 통제변수(공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통제변수는 연령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은 모두 임파워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판별함수분석에서 공변인을 각각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화 프로그램의 임

파워링 특성이 주민특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또 공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판별분류의 예측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판별분석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즉, 우선순위에 이론적 가정을 하지 않는 모델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단계적 판별분석은 전반적인 Wilks's 람다값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변인의 순서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이혜경 등, 2006).

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8.1%, 남성이 31.3%이었고, 참여기간은 5년 이상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년 이상 3년 미만인 29.6%, 3년 이상 5년 미만인 27.4%이었다. 거주기간에서는 5년 이상이 62.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2년제 포함)이 42.9%, 고졸 31.9%로 이 둘이 약 7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40대가 34.6%로 가장 많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2)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	남	57(31.3%)	학력	초졸	31(17.0%)
	여	125(68.1%)		중졸	15(8.2%)
참여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54(29.6%)	연령	고졸	58(31.9%)
	3년 이상-5년 미만	50(27.4%)		대졸(2년제 포함)	78(42.9%)
	5년 이상	78(43.0%)		39세 이하	44(24.2%)
거주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48(26.4%)	40세 이상-49세 이하	63(34.6%)	
	3년 이상-5년 미만	21(11.5%)	50세 이상-59세 이하	51(28.6%)	
	5년 이상	113(62.1%)	60세 이상	24(13.2%)	

2.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평균을 통하여, 응답자의 입파워링의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지역사회유능성 2.76, 지역사회활력화 2.68, 프로그램관리기술 2.66, 지지적환경창출 2.19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프로그램관리기술 2.66, 지역사회활력화 2.51, 지역사회유능성 2.50, 지지적환경창출 2.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은 지역사회유능성 2.73, 프로그램관리기술 2.70, 지역사회활력화 2.67, 지지적환경창출 2.35 순으로 나타났고, 대졸은 지역사회유능성과 프로그램관리기술이 각각 2.60, 지역사회활력화 2.56, 지지적환경창출 2.3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3년 미만의 경우 지역사회유능성 2.73, 프로그램관리기술 2.63, 지역사회활력화 2.58, 지지적환경창출 2.27 순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기술 2.67, 지역사회활력화와 지역사회유능성이 각각 2.65, 지지적환경창출 2.3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의 경우, 3년 미만은 지역사회유능성 2.65, 지역사회활력화 2.61, 프로그램관리기술 2.58, 지지적환경창출 2.29 순으로 나타났고, 3년 이상은 지역사회유능성 2.69, 프로그램관리기술 2.68, 지역사회활력화 2.63, 지지적환경창출 2.35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182)

구분	성		학력		이용기간		거주기간		전체
	남	여	고졸	대졸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지역사회 활력화	2.51 (.57)	2.68 (.61)	2.67 (.57)	2.56 (.63)	2.58 (.56)	2.65 (.62)	2.61 (.65)	2.63 (.58)	2.63 (.60)
지역사회 유능성	2.50 (.63)	2.76 (.63)	2.73 (.63)	2.60 (.66)	2.73 (.67)	2.65 (.63)	2.65 (.73)	2.69 (.61)	2.68 (.65)
프로그램 관리기술	2.66 (.66)	2.66 (.98)	2.70 (.65)	2.60 (.92)	2.63 (.66)	2.67 (.82)	2.58 (.73)	2.68 (.79)	2.66 (.77)
지지적 환경창출	2.40 (.75)	2.19 (.68)	2.35 (.74)	2.31 (.72)	2.27 (.68)	2.36 (.76)	2.29 (.77)	2.35 (.72)	2.33 (.73)

3. 판별분석 결과

판별분석의 수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모든 사례들이 종속변수상 배타적인 집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별변수는 등간척도 이상의 변수이고, 독립변수들은 극단적 상관관계를 보여서는 안되며, 또 집단의 공분산행렬은 각 집단마다 동일해야 한다(김신영, 2013).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등간척도라고 할 수 있고, 통합상관값을 보면, .577에서 .799 사이에 있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병화, 2006). 또 BOX's M의 검정결과 모집단의 공분산행렬은 성에 따른 판별분석(BOX's M 38.948, $p=.2159$)과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분석(BOX's M 13.037, $p=.4412$)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분석결과 첫번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다(Wilks's 람다 값=.929, $\chi^2 =12.955$, $df=2$, $p=.002$). 도출된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077이고 정준상관은 .267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판별함수에 나타난 독립변수들이 갖는 판별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lambda=.968$, $p<.05$)이고, 이어서 프로그램관리기술($\lambda=.929$, $p<.05$)이었다. 그리고 판별함수식 $Z=-2.434+2.319(\text{지역사회능력})-1.448(\text{프로그램관리기술})$ 이었다.

그리고 판별계수에 의한 분류 결과를 보면, 전체 판별정확도는 62.1%로 나타났다. 판별적중률은 도출된 판별함수가 대상을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김신영, 2013).

마지막으로 각 집단의 판별점수의 평균(group centroid)을 보면, 여주주민은 .188로 남자 -.402보다 크고 양(+)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특성에서, 반면에 남주주민은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에서 더 임파워링 경험을 인식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성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단계	단계별 계 Lamda	판별함수와 변인간 상관							
			1)	2)	3)	4)	5)	6)	7)	8)
연령1)			-.058	-.337	.075	.214	-.002	-.077	-.050	-.025
교육2)			-.066		.124	.042	-.078	-.088	-.057	-.016
이용3)			-.127			.272	.032	-.071	.019	.040
거주4)			-.017				.009	.030	.055	.029
지역활성5)			.401					.799	.698	.677
지역유능성6)*	1	.969*	.650						.741	.662
프로그램 관리기술7)*	2	.929**	-.029							.576
지지적 환경창출8)			.334							
아이겐값		.076								
설명변량		100							사례의 정확비율: 62.1%	
정준상관		.266							BOX's M=13.037(p=.4412)	
람다값		.929**								

(*p<.005, **p<.01, ***p<.001), 1), 2), 3), 4)는 통제변수, * 유의미하게 진입된 변수

나. 학력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학력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BOX's M=12.41, P=.007). 따라서 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표 6. 학력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단계	단 계	단계별 Lamda	판별함수와 변인간 상관	예측요인간의 pooled 상관							
				1)	2)	3)	4)	5)	6)	7)	8)
연령1)*	1	.884***	.907	-.092	.132	.241	-.018	-.096	-.075	-.021	
성2)			-.051		-.090	.005	-.121	-.172	.012	-.119	
이용3)*	2	.862***	-.298			.268	.053	-.044	.026	.052	
거주3)			.118				.011	.033	.058	.029	
지역활성4)			-.040					.801	.689	.682	
지역유능성5)			-.074						.727	.669	
프로그램 관리기술6)			-.083							.571	
지지적 환경창출7)			-.040								
아이겐값		.160									
설명변량		100							사례의 정확비율: 69.8%		
정준상관		.372							BOX's M=12.410(p=.007)		
람다값		.862***									

(*p<.005, **p<.01, ***p<.001), 1), 2), 3), 4)는 통제변수, * 유의미하게 진입된 변수

다. 이용기간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BOX's M=4.589, P=.033). 즉,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표 7. 이용기간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단계	단 계	단계별 Lamda	판별함수와 변인간 상관	예측요인간의 pooled 상관							
				1)	2)	3)	4)	5)	6)	7)	8)
연령1)			.175	-.076	-.430	.175	.034	-.026	-.028	-.032	
성2)			.031		.071	.031	-.122	-.182	.010	-.117	
학력3)			.010			.010	-.090	-.092	-.059	-.029	
거주4)*	1	.927***	1.00				-.004	.045	.052	.015	
지역활성5)			-.004					.807	.690	.681	
지역유능성6)			.045						.730	.673	
프로그램 관리기술7)			.052							.571	
지지적 환경창출8)			-.004								
아이겐값		.079									
설명변량		100							사례의 정확비율: 70.9%		
정준상관		.270							BOX's M=4.589(p=.033)		
람다값		.927***									

(*p<.005, **p<.01. ***p<.001), 1), 2), 3), 4)는 통제변수, * 유의미하게 진입된 변수

라.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분석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이용기간과 연령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파워링 특성은 모두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표 8.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단계	단 계	단계별 Lamda	판별함수와 변인간 상관	예측요인간의 pooled 상관							
				1)	2)	3)	4)	5)	6)	7)	8)
연령1)***	2	.899***	.545	-.082	-.437	-.004	.035	-.035	-.038	-.035	
성2)			-.118		.060	-.087	-.125	-.177	.008	-.120	
학력3)			-.146			.112	-.085	-.099	-.059	-.024	
이용4)***	1	.927***	.836				.042	-.065	.004	.043	
지역활성5)			.054					.803	.691	.682	
지역유능성6)			-.073						.728	.668	
프로그램 관리기술7)			-.017							.570	
지지적 환경창출8)			.017								
아이겐값		.113									
설명변량		100							사례의 정확비율: 72.1%		
정준상관		.318							BOX's M=6.135(p=.110)		
람다값		.899***									

(*p<.005, **p<.01, ***p<.001), 1), 2), 3), 4)는 통제변수, * 유의미하게 진입된 변수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Kasmel과 Tanggaard(2011)의 조직적 임파워먼트 영역(ODCE) 접근틀을 적용하여,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변인들이 지역주민의 성 등 주민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파워링 과정이 곧 성과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의 결과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이었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통제변수인 연령과 이용기간이 유의미하였다. 즉, 본 연구가 설정한 예측변인으로서 의미가 없었다.

둘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

링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이었다.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판별함수식과 집단 센트로이드, 집단평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주민의 임파워링 경험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남자주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주민들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들은 프로그램관리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활용 관련한 특성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공하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실천적 함의는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접근들이 동일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주민의 참여 효과는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는 임파워링 확대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첫째, 여성주민들이 지역사회유능성개발 영역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를 참여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또 스스로 인식하는 힘(Rowlands, 1995)의 의미로 이해하면, 여성주민에게는 의사결정의 권위를 얻는 것,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자산을 획득하는 힘으로(power to)의 접근이(Oxaal & Baden, 1997) 임파워링 확대에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들이 지역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직운동을 책임지고 의사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성은 아직도 남성(이구경숙 등, 2014)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같은 접근은 더욱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에게는 리더십 기회와 이에 필요한 지식자산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주민의 유능성 개발에 초점을 둔 여성주민리더교육, 자기주장훈련 등을 따로 설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직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여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여성들은 참여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의사소통을 임파워먼트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므로(이구경숙 등, 2014), 인격적 존중과 배려가 결합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언어, 의사소통 그리고 누구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을 때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조직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중심의 정보채널을 공식·비공식 채널로 다양화시켜 의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여성들의 정보흐름의 망을 최소 3~4개 이상을 만들고, 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남성주민들이 프로그램관리기술의 영역에서 임파워링의 경험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는 지역조직화사업에 참여하는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 관리와 이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습득 및 활용 경험에서 보다 더 임파워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 대한 외부의 자원제공은 주민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외부자원의 획득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책임성이 부여되고,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즉, 주민조직의 프로그램관리기술 능력은 외부자원의 획득과 이의 지속성에서 매우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다. 주민조직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차원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관리기술에 대한 지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접근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남성주민들을 우선적인 목표대상으로, 예를 들어 남성주민들이 선호하는 취미, 봉사 동아리와 주민조직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관리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조직화의 파트너십 의사소통구조를 고려하여, 실천가는 성별 임파워링 차이를 고려하여 협의유형을 차별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협의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실천가와 협의의 통화를 통하여 어떠한 임파워링을 경험하는가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개인적 정보 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정보지원 중심의 가능자(enable)형 협의, 남성에게는 주민조직 내 팀차원에서 프로그램실행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기술 지원 중심의 훈련가(trainer)형 협의 등으로 유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개별적 특성 중에서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임파워링 특성의 판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Christens, Speer & Peterson, 2011). 이 같은 결과를 연구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빈곤주민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라는 공통성이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에 대한 개인적 반응차이를 상쇄시켰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60% 이상이였다. 즉, 위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학력이라는 대표적 개인역량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특성에서도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강점이나 경험이 참여과정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비록 활용되더라도 성공적 감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즉, 참여효능감과 동떨어진 프로그램특성이 그 배경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실천가는 지역주민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거나 확대시킬 통제능력을 가져야 하고, 또 빈곤주민에게서 임파워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환경과 분리하여 개인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들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성별로 임파워링 경험을 의도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는 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 측면에서 부산과 포항, 울산 지역에 한정된 편의표본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또 그 모델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파워링의 특성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개별목표, 예를 들어 주민복지, 주민의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고수준집단과 저수준집단 혹은 여성내 고수준집단과 저수준집단 간 임파워링 특성 차이에 대하여 더욱더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간에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종단적 연구설계도 필요하다.

강대선은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이며, 현재 자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kds2398@hanmail.net)

참고문헌

- 강대선. (2013).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실천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5), pp.45-68.
- 강정희. (2015).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3(1), pp.79-101.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 책세상.
- 고미영. (2007).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임파워먼트 접근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와 적용. *상황과 복지*, 23, pp.131-163.
- 김미옥, 김연수, 김희성. (2009). 산재장애인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4), pp.307-332.
- 김신영. (2013). 노령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판별요인 분석: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18(1), pp.18-33.
- 김옥진, 김태연. (2012). 지역사회개발과 디스임파워먼트: 지역사회를 디스임파워하는 실천가의 역할유형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7, pp.49-84.
- 김인숙, 우국희.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pp.34-61.
- 부산복지개발원. (2015).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329호).
- 신명호. (2012).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운동은 가능한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5(2호), pp.69-99.
- 신옥순. (1991). *교육연구의 새접근: 질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양병화. (2006). *다변량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숙미. (2001).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상호지지 변화과정: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8, pp.59-87.
- 오정수, 류진석. (201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구경숙, 김현아, 임경진, 장민경. (2014). 사회적 경제조직 내 여성 임파워먼트 조건에

- 관한 연구: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용표 (2004). 현장과제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역량강화와 증상에 관한 훈련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pp.77-105.
- 이은희. (2009).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지역사회결속력 증대효과 분석: 수원시 노인보건복지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pp.29-54.
- 이인숙. (2010). 한부모 여성의 조직참여 특성이 임파워먼트 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연구, 41(2), pp.189-216.
- 이찬희, 문영주. (2013). 부산지역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의 지역조직화사업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pp.1-32.
- 이혜경, 신현숙, 이경성. (2006).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측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4(1), pp.49-62.
- 장인협. (1999). 사회복지실천론: 제너럴리스트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동신, 김창남, 홍득표, 이시훈, 김영수, 황근, 등. (2004). 정치커뮤니케이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차현미. (2005). 임파워먼트 관점에서의 중도지체장애인 가족보호제공자의 자조집단 프로그램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p.161-195.
- 최명민. (2004).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6(3), pp.89-1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3). 2013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담당자 교육자료집 <http://www.kaswc.or.kr>에서 2015.12.31. 인출.
- 홍현미라. (1998).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지역사회조직실천(CO Practice)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황성철. (2002). 임파워먼트(Empowerment) 모델과 사회복지조직관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pp.65-90.
- Boehm, A., & Staples, L. H. (2003). Empowerment: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Families in Society*, 85(2), pp.270-280.
- Bopp, J. (2004). *Welcome to the swamp: Why assessing community capacity is fundamental to ecohealth work*, 1, pp.24-34.
- Bush, R., Dover, J., & Mutch, A. (2002). *Community capacity manual*. Melbourne:

University of Queensland.

- Chinman, M., Imm, P., Wandersman, A., Kaftarian, S., Neal, J., Pendleton, K. T., et al. (2001). Using the getting-to-outcomes model in a statewide prevention initiative. *Health Promotion Practice*, 2(4), pp.302-309.
- Christens, B. D., Peterson, C. H., & Speer, P. W. (2014).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adulthood. In T. P. Gulletta & M. Blooms(Eds.), *Encyclopedia of primary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nd ed.*, New York: Springer, pp.1766-1776.
- Christens, B. D., Speer, P. W., & Peterson, N. A. (2011). Social class as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mpowerment processes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2), pp.170-182.
- DuBois, B., & Miley, K. K. (2005). *Social work: An empowering profession*. Boston, MA: Pearson.
- Fontan, J. M., Hamel, P., Mari, R., & Shragge, E. (2009). Community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n a metropolitan region. *Urban Affairs Review*, 44(6), pp.832-857.
- Foster-Fishman, P. G., Salem, D. A., Chibmall, S., Legler, R., & Yapchai, D. (1998). Empirical support, for critical assumption of empowerment theor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 pp.507-536.
- Gibbon, M., Labonte, R., & Laverack, G. (2002). Evaluating community capacity.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0, pp.485-491.
- Goodman, R. M., Speers, M. A., McLeroy, K., Fawcett, S., Kegler, M. Parker, E., et al. (1998). Identifying and defining the dimensions of community capacity to provide a basis for measure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ur*, 25, pp.258-278.
- Guerin, I., Kumar, S., & Agier, I. (2013). Women's empowerment: Power to act or power over other women? lessons from Indian microfinance. *Oxford Development Studies*, 41(4), pp.576-594.
- Gutierrez, L. M. (1995). Understanding the empowerment process: Does consciousness make a difference. *Social Work Research*, 19(4), pp.229-237.

- Howe, P., King, L., Noort, M., Jordens, C., & Lloyd, B. (2000). *Indicators to help with capacity building in health promoting*. Sydney: University of Sydney.
- Hughey, J., Peterson, A., Lowe, J. B., & Oprecu, F. (2008). Empowerment and sense of community: Clarifying their relationship in community organization. *Health Education & Behavior*, 35(5), pp.651-663.
- Hughey, J., Peterson, N. A., Lowe, J. B., & Oprecu, F. (2008). Empowerment and sense of community: Clarifying their relationship in community organizing. *Health Education & Behaviour*, 44(6), pp.651-663.
- Israel, B. A., Checkoway, B., Schulz, A., & Zimmerman, M. A. (1994). Health educa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erceptions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control.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 pp.149-170.
- Kasmel, A., & Tanggaard, P. (2011).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empowerment evaluation in Estonian community. *Societies*, 1, pp.3-29.
- Laverack, G. (1999). *Address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discourse and practice in health promotion*.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health promotion, Deakin University, Melbourne.
- Laverack, G. (2006). Using a domains approach to build community empower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 pp.4-12.
- Laverack, G. (Eds) (2005). *Health, power, empowerment and professional practi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averack, G., & Labonte, R. (2000). A planning framework for community for community empowerment goals within health promotion. *Health Policy Planning*, 15(3), pp.255-262.
- Laverack, G., & Wallerstein, N. (2001). Measuring community empowerment: A fresh look at organizational domai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6, pp.179-185.
-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pp.129-145.

- Midgley, J. (1997). Popular participation statism an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Development in Africa*, 2, pp.5-15.
- Nikkhah, H. A., & Redzuan, M. (2009). Participation as a medium of empowerment in community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1, pp.170-176.
- Oxaal, Z., & Baden, S. (1997). *Gender and empowerment: Definitions, approache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Peterson, A., & Zimmerman, M. A. (2004). Beyond the individual: Toward a nomological network of organization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2), pp.129-145.
- Prestby, J. E., Wandersman, A., Florin, P., Rich, R., & Chavis, D. (1990). Benefits, costs, incentives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in voluntary organizations: A means to understanding and promoting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pp.117-149.
- Rifkin, S. B., Muller, F., & Bichmann, W. (1988). *Community participation in MCH/FP programmes: An analysis based on case study material*. Geneva: WHO/UNICEF.
- Rissel, C. (1994). Empowerment: The holy grail of health promotio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9, pp.93-47.
- Rothman, J. (2001). Approaches to community intervention. In J. Rothman, J. L. Erlich, J. E. Tropman & F. M. Cox(Eds.),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Macro practice*, Itasca: Peacock, pp.26-63.
- Rowlands, J. (1995). Empwerment examined. *Development in Practise*, 5(2), pp.101-107.
- Smith, N., Littlejohns, L. B. M., & Roym, D. (2003). *Measuring community capacity: State of the field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report*. Alberta: David Thomson Health Region.
- Toomey, A. H. (2009). Empowerment and disempowerment in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Eight roles practitioners pla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6(2), pp.181-195.
- Wandersman, A. (1999). Framing the evaluation of health and human service programs in community settings: Assessing progres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83,

pp.95-102.

- Wandersman, A., Imm, P., Chinman, M., & Kaftarian, S. (2000). Getting to outcomes: A results-based approaches to accountabilit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3), pp.389-395.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pp.581-599.
- Zimmerman, M. A. (1990). Taking aim on empowerment research: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concep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pp.169-177.

A Study On the Poor Area Resid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ponding to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ODCE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Approach Framework

Kang, Dae Su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e the poor-area 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education, service use duration, and residency time. For this, the author applied the Kasmel & Tanggaard's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ODCE) approach framework to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employe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182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ender and residency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scriminant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s of residency ti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mpowering variable. Secondly, the empowering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residents were community competence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with an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62.1%. Thirdly, female residents perceived more empowering experience in acqui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while, male perceived more in acquiring skills relevant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rograms.

Keywords: ODCE, Community Welfare Center,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Empowering